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페루가 비극을 기억하는 방법 - 리마와 아야쿠초 추모기념관 탐방기

박수경

기념의 장소

서둘러 택시를 탔다. 일본인페루이주기념관에서 신선한 인상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다. 전시물이 많은 장소는 아니었다. 전시물을 살펴보기 보다는 설명을 찬찬히 읽어야 하는 곳이었다. 그래도 백여 년 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처음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의 근로계약서를 보며 숙연해졌다. 이주노동자로 처음 이곳에 왔을 일본 농민의 고단한 삶이 어땠을까 생각하다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처음 도착한 식민지 조선 농민보다는 나은 처우를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다. 그로부터 백 년 만에 일본계 대통령을 배출하고 지금은 그를 수감 중인 이 나라 페루와 일본의 관계가 새삼 흥미롭다.¹⁾

방문하려는 다른 곳의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서둘러 탄 택시가 아니나 다를까 해변도로를 타기 시작한다. 작게는 리마 시내, 좀 더 넓게는 페루, 더 확장하면 남아메리카의 모든 나라에서는 해안가를 따라 중심 도로가 나있다. 태평양과 접해 있는 나라들은 내륙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1) 1899년 790명의 일본인 계약노동자들이 페루의 카야오 항구에 도착했다. 1990년 일본계 알베르토 후지모리는 페루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7년 후지모리는 재임 중 저지른 범죄로 송환되어 25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페루 리마 미라플로레스 해안가에 위치한 기념관 전경(출처: <http://static.panoramio.com>)

안데스 산맥이 버티고 서있고, 대서양과 접해 있는 나라들은 아마존 열대 우림이 장막을 치고 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국가의 교통망은 해안과 나란히 달리는 도로를 기둥삼아 내륙으로 뻗은 가지를 따라 꺾어 들어가는 식이다. 리마도 마찬가지다. 도시에서 남북으로 이동할 때는 자동차전용도로인 해변순환도로를 선호한다. 도로 한편에는 해안절벽이 높이 서 있고, 다른 한편으로 태평양이 펼쳐진다. 찬 기운을 가득 머금은 홈볼트해류가 높은 습도와 만나는 탓에 리마에서는 청명한 하늘 대신 잔뜩 찌뿌린 하늘을 보기 쉽다. 하늘이 찌푸리니 바다도 푸른빛을 띠기 어렵다. 해변도로를 달리다보면 한쪽으로 펼쳐진 회색빛 태평양이 아쉽다. 회색빛 바다를 옆에 끼고 구름인지 안개인지 모를 잿빛 기운이 낮게 드리운 하늘을 파고드는 해변도로에는 자동차들만 시원스레 속력을 낸다. 속도가 주는 쾌감과 함께 마음이 서늘해진다. 리마의 바다는 을씨년스런 구석이 있다.

해변도로를 따라 달리던 택시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해안절벽 위로 올라가던 택시가 오르막길 중간에 엉거주춤 정차했다. 정차해도 될까

싶은 커브길 주변에는 행인도 상점도 보이지 않는다. 뽕뽕 소리 내어 달리는 자동차뿐이다. 여행자의 본능으로 단번에 외진 곳에 떨어졌다는 판단이 들었다.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다 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앞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며 입구라고 알려주었다. 제대로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해가 넘어가기 시작한 늦은 오후 해안절벽 중턱에 자리 잡은 그곳의 첫 느낌은 스산했다.

도로 한쪽으로 나 있는 보행자 입구를 통해 들어서면 낮선 여행자에게 기념관(Lugar de la Memoria)은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커다란 시멘트 구조물처럼 보였다. 추모의 공간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엄함이라는 건축학적 요소를 표현하고 있구나 싶었지만, 리마의 냉하고 습한 공기, 회색빛 태평양, 을씨년스러운 해안도로로 이어지는 그날의 기분에서 마주한 무채색의 거대한 건물은 장엄함과 스산함 가운데 어디쯤에 있었다.

이곳의 정식명칭은 ‘기념, 관용, 사회적 포용의 장소’(Lugar de la Memoria, la Tolerancia y la Inclusion social)이다. 2015년 12월 18일 개관하였으니, 선을 보인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페루사회에서 기념관을 두고 설왕설래한 지는 꽤 여러 해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1층 로비로 들어서니 제일 먼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전시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될 단어, ‘폭력’이 눈에 들어온다. “1980년 이후 페루는 과격한 폭력시대를 보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 공간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설명이 있다. 이에 따르면, ‘영광의 길’(Sendero Luminoso)과 ‘투파카마루혁명운동’(Movimiento Revolucionario de Túpac Amaru)의 무장투쟁으로 촉발된 유혈사태는 주로 안데스 산간지역과 아마존 밀림 지역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페루 정부는 이 사태에 적절한 정치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군의 힘을 빌렸는데, 군 역시 인권유린의 가해자이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3개 층으로 이루어진 ‘기념, 관용, 사회적 포용의 공간’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무장혁명단체가 자행한 폭력과 군이 저지른 인권유린을 기억하는 데 첫 번째 목표가 있다. 기념함으로써 관용과 사회적 포용을 학습하도록 설계된 문화공간이다.

1층의 첫 번째 전시공간에서 ‘폭력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위 두 개 단체의 출현과 20년 동안 발생한 주요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기념관 1층 '폭력의 기원에 관하여'(출처: <http://nandiperu.com>)

그러한 목적에 충실하려는 의도 같다. 그 시대를 몸소 살아낸 페루인이라면 기억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지만, 그 시대를 하나의 정보로 전달 받고 기억해야 하는 후세대나 외국인에게는 한참동안 발길을 멈추고 읽고 들여다보며 이해해야 할 학습의 공간이다.

다른 관람객의 시야를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이쪽저쪽으로 몸을 사리며 가끔은 까치발을 해야 했다. 관람객의 수가 많지 않아 천천히 걸음을 옮겨도 될 정도인데, 막상 학습을 하려니 콩나물 교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설명문 앞에 웅기종기 모여 흘깃거려야 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관람객 대부분이 20대 젊은층이다. 그들도 나처럼 개인의 기억에 담겨있지 않은 정보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하나의 집단기억이 만들어지는 중이었다.

공간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보니 빼곡한 글자와 사진이 부담스러울 만큼 늘어서있다. 여행자가 적극적으로 학습태도를 보이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전시공간 정도가 아닐까. 전체 전시공간의 규모를 알지 못한 채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히 학습하겠다는 각오는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관람시간 마감으로 내쫓기는 경우가 생긴다. 여행자의 감각을 살려 속독과 정독을 오가는 선택적 학습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그렇게 둘러보기 시작하니 전시된 사진과 그림은 그 시대의 비극을 생생히 보여준다.

취재 목적으로 우추락카이(Uchuraccay)를 방문했다가 살해당한 7명의 기자, 푸티스에서 학살당한 100여명의 주민과 아이, 6천명 이상이 살해당하고 만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면서 인구의 1/5이 감소했다는 아마존 지역의 아사닌카(Asháninka)인에 대한 기록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알아챘다. 첫 번째 전시공간의 연대기에 등장한 사건 가운데 이 세 개의 사건이 선택되어 전시된 이유가 있었다.

우추락카이에서 7명의 기자를 살해한 것은 테러집단도 정부군도 아니었다. ‘영광의 길’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던 지역주민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이었다. 푸티스 학살 사건은 정부군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했다. 정부군은 마을 주민을 한곳에 모은 후 구덩이를 파게 했고, 주민을 살해한 후 그 구덩이에 암매장했다. 테러집단의 동조자를 색출하고 마을 재산을 탈취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 지역의 아사닌카인들은 1980년대 말부터 약 10년 동안 ‘영광의 길’에 의해 점진적으로 학살당했다. 마오주의와 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혁명 이데올로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두 번째 전시공간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된 세 가지 사건은 폭력이라는 비극을 공유하되 그 비극을 초래한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는 듯 보였다.

두 번째 공간의 오른쪽 동선이 세 가지 사건을 기념하고 학습하도록 안내한다면, 왼쪽 동선은 ‘영광의 길’의 영향력이 확장된 원인과 과정을 제시한다. 아야쿠초에 위치한 와망가(Huamanga) 국립대학교의 철학교수로 재직하던 아비마엘 구스만(Abimael Guzmán)은 마오주의의 연장선에서 혁명사상을 전파했다. 그의 사상을 따르는 교수와 학생이 주축이 되어 1960년대 말 결성된 ‘영광의 길’은 70년대 페루 주요 대학으로 영향력을 확장했으며, 1980년 선거 투표함을 폭발시키면서 무장투쟁을 시작했다. 그 이후 ‘영광의 길’은 안데스 산악지역을 주요 활동무대로 삼아 영향력을 행사했고 교육기관은 그들의 이념을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아비마엘 구스만은 단지 이념적 지도자가 아니라 무장혁명집단의 지휘관으로 이후 이 단체가 행한 모든 폭력사태를 주도했다.

기념관 1층 '한 사람이자 모두의 목소리'(출처: <http://lum.cultura.pe>)

기념이란 수많은 과거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불러내는 과정이며, 집단 기억을 구성하여 기념하는 것은 특정한 매체를 통해 내러티브를 구성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러한 전달을 통해 거두고자 하는 효과는 추모, 치유, 학습, 교훈, 역사화 등 다양하다. 두 번째 공간의 왼쪽과 오른쪽을 오가며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기념관이 전달하려는 내러티브는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 아비마엘 구스만이 이끄는 '영광의 길'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며 20년 동안 이어진 폭력시대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 행위자는 무장단체, 군경, 지역주민으로 확대된다. 기념관에서 선별한 정보 속에서 관람객이 다시 선별적으로 기억하게 될 장면은 무엇일까.

전시공간에 잘 배치된 사진과 사건의 개요가 머릿속에서는 어수선하게 자리를 잡은 채 1층의 가장 안쪽 마지막 공간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사진도 설명도 없었다.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들썩 짝지어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듣고 있었다. 나도 한 사람 앞에 가서 섰다. 흰 셔츠를 입은 중년의 남성이다. 여행 중에 길을 물어봐

야 한다면 행인 가운데 이런 인상을 가진 분에게 다가가겠구나 생각했다. 두툼한 이어폰을 끼고 버튼을 눌렀다.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1층의 가장 안쪽 공간은 폭력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곳이다. 그러나 기념관이라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시청각 자료와는 다르다. 실물 크기의 영상 속에서 그들은 방문객과 눈을 맞춘다. 방문객이 그들의 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하는 편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울음을 삼키며 이야기한다. 배경음악이나 이미지 같은 소품은 필요치 않다. 그들은 우리 앞에 서서 증언한다. 그 증언을 들으며 인간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지 새삼 깨닫는다. 그리고 손도 말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그 남성은 큰 움직임 없이 두 손을 모아 잡고 있었다. 하지만 서 있는 그 앞에 의자를 두고 앉은 내 시선이 가 닿는 그의 손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곳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10개 남짓의 스크린에는 테러의 피해, 학살, 납치, 불법체포, 부당구금 등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관람객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페루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느새 스크린 앞에 서서 증언을 듣기보다는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감을 들여다보는 데 열중했다. 그러다가 스치듯 지나쳐버린 스크린 속 한 인물이 인권운동가로 유명한 앙헬리카 멘도사(Angélica Mendoza, 1929-2017)라는 것을 이 글을 준비하며 알게 되었다.



페루 인권운동가 앙헬리카 멘도사



페루 아야쿠초 추모관 전경(출처: <http://anfasep.org.pe>)

추모의 장소

1983년 7월 12일 늦은 밤 집으로 들이닥친 군인과 경찰은 앙헬리카 멘도사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끌고 갔다. 아들의 행방을 찾아헤매던 앙헬리카는 두 달쯤 지난 9월 2일 실종된 자녀를 찾던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아야쿠초에 페루납치구금실종자가족협의회(ANFASEP, 이하 ‘실종자가족협의회’로 표기함)를 설립했다. 아야쿠초는 무장혁명단체의 주요 활동 무대로 20년 동안 계속된 폭력사태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다. ‘영광의 길’에 가담한 조직원과 협조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가해진 국가폭력은 아야쿠초 농촌사회를 폐쇄하게 만들었다. 아야쿠초의 많은 농민은 이 시기동안 농촌지역을 떠나 도시로 이주했다. 증가하는 폭력사태로 인하여 앙헬리카 멘도사의 주도로 만들어진 실종자가족협의회는 수개월 만에 800명 규모로 성장했다. 실종자가족협의회는 폭력사태 속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나 실종자를 찾느라 생계를 돌보지 못하는 피해자가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실종자가족협의회의 활동은 실종자 수색과 진실규명 등으로 확대되었고,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설립되는



추모관 내부(출처: <http://anfasep.org.pe>)

데 크게 기여했다. 실종자가족협의회는 오랫동안 페루 인권운동의 중심이었고 현재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종자가족협의회에서 설립한 추모관(Museo de la Memoria)은 아야쿠초 시내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 리마의 기념관을 찾아가는 길과 사뭇 달랐다. 인구 20만 명의 도시 아야쿠초의 중앙광장에서 서너 블럭 정도 멀어지자 상점의 수가 눈에 띄게 적어지며 주택가가 이어졌다. 철근이 그대로 노출된 건물들 사이로 길거리를 활보하는 개 몇 마리를 피해 몇 블록 더 걸었다고 생각할 무렵 지도에 표시된 도착지점에 이르렀다. 여러 길로 갈라지는 교차지점에 찍혀있는 점이 실제로 어느 길 위에 있는지 찾으려 두리번거리다가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벽화가 눈에 들어왔다. 외벽에 페인트칠은커녕 시멘트나 벽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집들이 태반이라 알록달록한 색이 눈에 띄었다. 그려진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군데군데 빛이 바랜 그림은 슬픔과 잔인함을 한가득 표현하고 있었다.

건물은 찾았지만, 입구를 찾지 못해 다시 한 번 두리번거렸다. 결국 1층의 음식점에 물어보고서야 모퉁이를 돌아 작은 출입문을 찾아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일반 건물을 개조한 허름한 공간이 나타났다. 좁은 계단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갔다. 전체 전시공간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정도라 다시 학습의 태도로 임했다. 그러나 폭력의 언저리에

서 가장 취약하기 마련인 어린이와 여성의 피해를 조명하는 사진과 설명을 읽어나가다가 뒤를 돌아볼 때 이곳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습보다는 공감과 각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곳에는 유해발굴현장을 재현하고 있었고, 한켠에는 작은 창문이 달린 커다란 철문이 있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니 두 개의 마네킹으로 고문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전시물품은 유해발굴에서 나온 밧줄, 희생자의 옷과 유품이었다. 짧은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지만, 그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 아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일부였다가 홀로 남겨진 채 이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을 오랜 기다림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더 의미 있어 보였다. 이곳은 사건의 설명과 사건들의 배치를 통해 특정한 집단기억을 형성하기보다는 폭력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듯하다. 이곳에서는 기억을 형성하기 보다 기억의 실체와 대면하게 한다. 그 실체는 어떤 매체를 통한 상징이자 은유가 아니라 그 때 그 장소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물의 직접적 제시이다. 아야쿠초 추모관의 이름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Para que no se repita)이다.

그래서 그 사물이 묵혀 있었던 시간만큼이나 이곳의 모든 것에서 시간의 흔적이 느껴진다. 깔끔하게 디자인해서 매끈하게 인쇄되어 눈에 착착 감기는 설명과 사진 대신 장소와 사물 모두 소박하고 단출하다. 그러나 빛바랜 외벽의 그림 같은 이 공간과 전시물은 리마의 바다처럼, 리마의 기념관처럼 스산하지는 않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는 상점, 집, 사람, 개가 있었다. 페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철근이 그대로 드러난 집은 을씨년스럽지 않다. 그 집은 버려진 집이 아니라 한창 가꾸어지고 있는 집이기 때문이다. 페루 사람들은 기약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건물의 층을 더 올리기 위해 하늘로 솟아 있는 철근을 자르지 않는다. 아야쿠초의 추모관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희망과 욕망 속에서, 그들과 함께 나이든다.

들어올 때는 몰랐지만, 입구 왼쪽의 작은 사무실에는 경비원이 아니라 실종자가족협의회 활동가가 자리를 지키며 관람료를 받고 있었다. 사무실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작은 공예품 가게처럼 페루 특유의 직물로 만든 여러 소소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다. 실종자가족협의회 활동 후원비 마련을 위해 판매하는 물건들이다. 아야쿠초 추모관은 다만 과거를 기념

하고 상기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인권운동을 전개하는 실종자가족협의회의 공간이다. 누군가의 일부인 공간은 낡아도 퇴색되지 않는다. 십여 년 만에 발굴된 유품이 다 헤어져 나뉘더라도 관람객의 시선을 잡아끄는 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리마와 아야쿠초 사이에서, 기념과 추모 사이에서

리마에서 아야쿠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비행기를 탔다면 어려울 것 없었을테고, 직행을 했다면 10시간의 버스여행을 견디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태평양 연안을 따라 나있는 판아메리카고속도로를 타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태평양 연안의 리마에서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는 대신 바로 안데스 산맥으로 올라가 우안카요로 향했다.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 후 아야쿠초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고속버스 노선이 없어 봉고차에 몸을 실었지만 얼마 가지 못해 봉고차는 멈춰버렸다. 아름다운 안데스 산맥 어느 외진 길에 조난자가 되어 두어 번 차를 바꾸어 탄 후에 기진맥진해 아야쿠초에 도착했다. 안데스 산맥의 굽이진 자락 그대로 지그재그 난 길을 따라 한참을 달린 후 버스에서 내렸을 때는 어두컴컴한 새벽이었다. 다음날 맞이한 아야쿠초는 눈이 부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새파란 하늘을 이고 있었다.

여행지로서 페루의 매력은 단연코 안데스 산맥 굽이굽이 이어지는 자락에 있다. 굳이 마추피추가 아니어도 좋다. 눈부시게 새파란 하늘과 눈이 멀듯한 강렬한 태양의 기운, 그림에도 해발 3000-4000미터 고산지대가 선사하는 선선하고 건조한 쾌청한 날씨,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광경은 여행자에게 선물같다. 그러한 자연환경과 강하게 결합된 인간 삶의 과거와 현재를 눈에 담아보는 것만큼 여행자로서 행복한 일이 있을까. 그러나 여행자는 여행의 마지막날 페루를 떠나며 리마를 경유하기 마련이다. 그때 다시 깨닫는다. 여행자에게 각인된 페루는 안데스 지역이지만, 페루의 중심은 태평양 연안의 회색빛 도시인 것을 말이다.

페루의 안데스 문화는 오래 전부터 수도인 리마가 자리한 해안가지역



추모관에 전시된 앙헬리카 멘도사의 사진- 오른쪽(출처: <http://anfasep.org.pe>)

의 스페인 문화와 대척점을 이루었다.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부를 본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해안가 항구를 중심으로 선택한 스페인인들은 해안지역에 자리를 잡았고, 안데스 산악지역에서 삶을 일구어 온 안데스인은 식민시대부터 피식민자의 문화를 유지하며 스페인문화와 평행선을 그려왔다. 독립 후 페루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이 새로워진 후에도, 스페인 문화와 안데스 원주민 문화가 그리는 평행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해안가 지역은 페루의 부와 자원을 독점했고 안데스 지역은 빈곤과 저발전에 시달렸다. ‘영광의 길’을 비롯한 무장혁명단체의 활동은 평행선을 달리는 두 지역의 틈새에서 짝을 틔웠고, 그 짝은 두 지역 사이에 커다란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들이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수록 리마와 아야쿠초 사이의 길은 점점 험난해졌다.

2000년 아비마엘 구스만이 체포되고 무장혁명단체의 활동이 잠잠해진 후에도 리마를 중심으로 발전된 해안가 지역과 안데스 산악지역의 격차는 여전히 페루사회가 가진 모순 가운데 하나다. 두 지역이 그리는 평행선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리마의 기념관과 아야쿠초의 추모관

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지만,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추모관과 기념관 모두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었지만, 페루정부의 지원 없이 실종자가족협의회가 아야쿠초에서 운영해온 추모관과 달리 리마의 기념관은 불청객처럼 세워졌다. 2009년 독일정부가 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백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했을 때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제안을 거절했다. 비난 여론에 밀려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도 기념관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 건립장소가 논의될 때 사건의 무대인 아야쿠초는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리마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추모행사를 치르던 역사적 장소가 있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그곳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미라플로레스 지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을 때에도 기념관 부지가 미라플로레스 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주민 반대를 무마해야 했다. 리마의 정치인들과 주민들은 안데스 지역에서 벌어진 비극이 리마, 리마 가운데에서도 부촌인 미라플로레스 지구, 미라플로레스 가운데서도 해안절벽 위 쇼핑몰 라르코마르가 상징하는 발전된 리마의 모습 위로 겹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안절벽 중턱 간신히 들어앉은 기념관은 기념해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적당히 격리된 곳에 지어졌다.

리마와 아야쿠초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1980~2000년의 시기를 기억해나가던 와중에 2017년 8월 28일 양헬리카 멘도사가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공포와 두려움이 몰아간 페루 역사의 한 장에서 용감히 나서 진실과 정의를 요구했던 사건 당사자의 죽음이었다. 그녀의 죽음을 애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12일 의회에서 실종자가족협의회가 ‘영광의 길’을 찬양하며 테러리즘을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10월 말 페루 검찰은 아야쿠초 추모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1980~2000년 폭력의 시기는 아직 페루의 현재에 관여한다. 그 시기 자행된 공권력의 인권유린과 부정부패로 수감 중인 후지모리 전대통령의 자녀들이 정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야쿠초는 리마의 정치권에서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다.

기억하라는 사회적 요구 앞에 기억의 형태는 다양하게 표출된다. 리마의 기념관은 객관적 정보를 기록하여 전달하는 데 집중하며 학습을 통한

교훈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아야쿠초의 추모관 역시 학습을 통한 교훈을 주요 목적으로 삼지만, 그곳에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있다. 사건의 당사자들 앞에서 사건의 객관적 전달과 학습은 현재를 과거화시키는 효과로 나타난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사건을 기념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들을, 그 사건을 과거화한다. 그러나 그 사건을 과거화시키는 매개가 되는 기념이라는 기억의 형태는 철저히 현재적이다.

리마의 ‘Lugar de la Memoria’와 아야쿠초의 ‘Museo de la Memoria’를 한국어로 어떻게 옮겨야 할지 고심했다. 장소의 의미를 지닌 lugar와 박물관의 의미를 지닌 museo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러나 두 단어를 동일한 한국어로 옮길 수도 없었다. 이곳을 방문하기 전부터 스페인어에서 일반적으로 추모기념관을 의미하는 museo de la memoria 대신 lugar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궁금했다. 그곳들을 방문한 후에도 그 궁금증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작은 힌트를 얻었다. memoria라는 말 뒤에 따라나오는 수식어가 있었다. Lugar de la Memoria 뒤에는 ‘관용’과 ‘사회적 포용’이, Museo de la memoria 뒤에는 추모관의 고유명으로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이라는 절규가 있었다. 리마의 기념관이 현재의 정치적 지형 속에서 그들 스스로 과거화 시킨 사건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제안한다면, 아야쿠초의 추모관에는 슬픔이라는 개인적 감정과 사회적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직간접적인 당사자들이 여전히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 기념과 추모 모두 기억의 한 가지 형태이지만 그 두 가지 형태 사이에는 과거의 사건을 과거화할 것인가 현재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놓여 있다. 그래서 memoria는 기념이기도 하고, 추모이기도 하다. 리마와 아야쿠초 사이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진다면, 현재와 과거 사이도, 기념과 추모 사이도 가까워질 것이다.

박수경 — 고려대학교 시간강사